

# 실적 발표 관망세 속 빛나는 K-뷰티, 푸드



[ Market Analyst ] 이재원 연구원

## KOSPI는 0.1% 상승한 2,725p. 공매도 재개 우려 완화에 외국인 자금 재유입. 수출 호조 업종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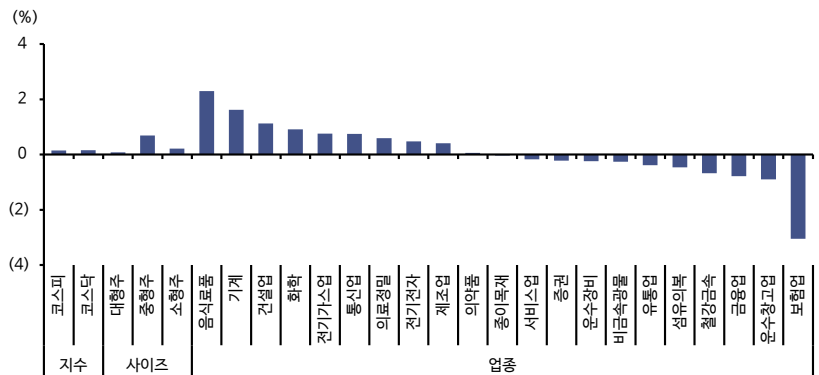
- 미국 주식시장은 엔비디아, 테슬라 상승에 S&P500, NASDAQ 신고가 경신. 엔비디아 실적 대기 :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에 상승. 테슬라(+6.7%) 전기트럭 '세미' 생산 확대 기대 속 상승 : 연준 위원 비둘기파적 발언에 시장금리 소폭 반락. 윌러 연준 이사 "금리 인상 불필요" 입장
- KOSPI는 장초 외인 선물 매도에 하락 출발, 내달 공매도 재개 우려 완화되며 순매수 전환 속 반등 : 대통령실, 공매도 전산 시스템 갖춰지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 재확인 (연합뉴스) : 전일 이어 장초 외국인 선물 순매도 규모 확대(장초 -6,000계약 이상-)현재 +1,200계약)후 순매수 전환 :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K-푸드, K-뷰티, 전력기계 등 실적 모멘텀 추가된 업종 강세 지속 : 음식료) 동원 F&B, 대상 52주 신고가.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빙그레 모두 상승. 수출로 인한 호실적 기대 : 화장품) 1분기 화장품 수출액 YoY +22%.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출로 인한 호실적 기대 2 :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실적 모멘텀 (수출 호조, 이익추정치 상향) 추가된 업종에 수급 유입 : 지수 향방 및 자금 유입 여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달릴 것. 실적 예상치 부합 및 가이드نس 확인 필요

## KOSDAQ은 0.2% 상승한 848p. 엔비디아 실적, FOMC 의사록 대기하며 개별 이슈에 따른 증폭 장세

- KOSDAQ, 4거래일 만에 반등. 이벤트 대기 심리에 반등 폭은 크지 않은 가운데 개별 증폭 장세 시현 : 머크 자체 개발 키트루다SC 조용히 실패 발표. 알테오젠, 상대적 기술력 부각되며 강세 지속 : 게임(넥슨, 던파 모바일 흥행 기대), 수소차(현대차, 수소 상용 밸류체인 확장 계획 발표)

원/달러 환율은 비둘기파적 연준이사 발언에도 FOMC 의사록 대기 속 보합. 0.6원 하락한 1,362.7원  
아시아 증시 혼조. 일본(니케이) -0.8%, 대만(가권) +0.4%, 홍콩(항셱) -0.3%, 중국(상해) -0.1%

업종별 주가 등락률



## 5월 4주차(5월 21일~24일) 주요 이벤트

이벤트	세부 내용	영향
엔비디아 실적발표 (5/22)  ★★★★★	매크로 변수 완화에 1분기 실적발표 영향력 막강. 엔비디아 실적 예상치 부합 여부 및 가이던스 주목  • 미국: 메이시스(5/21) <b>엔비디아</b> , 타깃(5/22) 폴로랄프로렌(5/24) 실적발표  • 1분기 한미 실적시즌 마무리 국면.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엔비디아의 실적발표 22일 예정. (한국 시간 23일 오전 6시). 금주 금리 인하 기대 재개되며 주식시장 자금 유입. 특히 애플, 구글, MS의 연이은 AI 관련기술 발표에 AI 모멘텀 지속. 시장 상승 주도한 반도체 업종의 대장적인 엔비디아의 주식시장 영향력은 막강.  • 4월 TSMC와 ASML 등 대형 반도체 업체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 하향 or 조정에 반도체 업종 동반 약세. 금리 우려 감소에 엔비디아 호실적 기대감 더해지며 반도체 업종 자금 유입 재개 (SK하이닉스, NASDAQ 신고가). 선반영된 주가에 대한 기대 증명하기 위해서 실적 예상치 부합과 함께 가이던스 상향 역시 필요한 상황	금주 엔비디아 실적에 반도체 업종, KOSPI 지수 향방 갈릴 전망
미국 S&P 글로벌PMI 예비치 (5/23)  ★★★☆☆	4월말 주식시장 변동 원인 중 하나였던 PMI 부진. 부진 지속되어 금리 영향 미칠지 확인해야  • 23일(한국시간 : 23일 오후 10시45분) S&P글로벌이 발표하는 미국의 5월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 발표  • 예상치 크게 상회한 3월과 다르게 4월 S&P글로벌 제조업 PMI 49.9로 연내 최저치 및 예상치 하회(예비치 기준). 서비스업 PMI도 50.9로 연내 최저치. 고금리에도 굳건했던 미국 경기가 여전히 강할 수 있을지. 또한 추가적 부진 발표시 금리, 달러 인덱스 하락과 함께 주식시장 상승 모멘텀이 추가될 수 있을지 주목해야	경기 둔화 신호 지속은 금리 인하 명분
미국 5월 FOMC 의사록 (5/23)  ★★★☆☆	연준 위원들의 경기 진단 내용은? 회의 후 발표된 경제지표 탓에 시장 영향력 적을수도?  • 5월 FOMC 회의 결정 배경 및 연준 위원들의 경기 진단 내용 파악 필요. 4월 소비자 물가 예상치 부합 및 소매판매 부진에 금리 연내 2회(9월) 인하 전망 높아졌으나, 매파적 입장 확인(연내 1회 인하 혹은 금리 동결 장기화 시사 등)될 경우 시장 금리 인하 기대감 재위축 가능	연 2회 금리인하 기대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해볼 필요
한국 금통위 회의 (5/23)  ★★★☆☆	금리 동결은 사실상 확정. 1분기 상향된 GDP, 높아진 환율 및 유가 변동성에 물가상승률 변동될지?  • 단기적으로 물가 불확실성 확대돼 금리 인하 명분 약화.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긴축 우려는 차단. 미국 금리 인하 시기 변경, 예상치 상회한 1분기 GDP 성장률, 변동성 커진 유가 및 환율 등 변화된 대내외 여건에 따른 금통위 대응 방향 확인 필요	변동성 커진 대내외 환경, 생각보다 좋았던 GDP에 금통위 방 향성 변경 가능

자료: 신한투자증권 / 주: 별(★) 개수는 각 이벤트의 중요도 표시

## Compliance Notice

---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이재원)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